

## 7 천명 파룬궁학원들 대북에서 수련심득을 교류

2010 대만파룬따파수련심득교류회가 지난 11 월 29 일에 대북시대만대학체육관에서 성대히 소집되었다. 대만각지와 스리랑카, 오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온 7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참가했고 18 명 동수들이 파룬따파수련심득을 이야기했다.

사역상(师铎奖)을 받은 엽육함(叶育涵)은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사업과 생활에서 “쩐싼런”의 법리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학교에서 공인하는 최고표준에 도달된 가장 우수한 교원으로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룬 성과는 모두 파룬궁의 덕택이고 나에게 준 리홍지사부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상을 탈수 있는것은 수련의 표준



에 따라 자신을 요구한데서 자연히 이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중에서 온 온합매(温合妹)는 몇년전 파룬궁을 수련하면서부터 매일 일월담에 가서 대륙의 유람객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면서 “3 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고하여

1 주일동안만 해도 90 여명이나 “3 퇴”시켰다.

대동 림유봉(林渝凤)은 수련하기전에 우울증, 자궁암 등 여러가지 병에 걸려 모진 시달림을 받았다. 9 일동안 리홍지선생님의 학습반에 참가한후, 그의 병증세는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졌다.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게 된 그는 매일 대륙에 전화를 쳐 진상을 이야기하고 “3 퇴”를 권고하여 수많은 경찰들을 “3 퇴”시켰다.

## 5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배렬한 립체련꽃과 “쩐싼런”

지난 10 월 27 일, 5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대북시정중기념당에 모여 아름다운 립체련꽃과 푸른색 “쩐싼런” 세 글자를 배렬했다. 해빛에 유난히 빛나는 립체련꽃과 미묘하고 뛰어난 “쩐싼런” 세 글자는 서로 어울려 각별히 장엄하고 신성했다.

이 도형을 설계한 오청상(吴清祥)건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쩐싼런’을 수련하는것은 내포이므로 이 세 글



자는 주체이다.련꽃은 고상하고 성결한 경지를 대표했으며 금빛찬란한련꽃은 우리들의 ‘쩐싼런’을 수련하는 진정한 수련경지를 돋보이게 했다. 지금 파룬따파가 100 여개 나라에 널리 전파되고 1 억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있으므로 36 갈래의 금빛은 파룬따파의 전파와 영예를 표시하며 전부의 도형은 파룬따파의 수성과 아름다움을 전시한다.》



## 인도 천인교장년회에서 환영을 받은 천국악단



회가 서남빈해의 경제대성시 몽마이에서 소집되었다. 대만, 싱가포르, 말라시아 및 일본의 파룬궁학원으로 구성된 아태 백인천국악단의 공연은 래빈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  
난 11  
월 24  
일과  
25 일  
에 인  
도천인  
교장년

## 이스라엘에 전파된 파룬따파



1997  
년에 파  
룬따파  
가 이스  
라엘에  
전파된  
후  
2001

년 10 월에 이스라엘 파룬따파협회가 성립되고 2002 년 4 월에 이스라엘 파룬따파 인터넷사이트가 아라비아어로 정식개통되었으며 2002 년 9 월에 히브리어로 된 “전법륜”책이 정식발행되었다. 2009 년 12 월 26 일에 이스라엘제 7 기법회가 텔아비브에서 소집되고, 지금 파룬궁련공지점이 29 개나 되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있다. 뒷사진은 해변가 모래톱에서 단체련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파룬궁학원들이다.

## 로마에서 초불만회를 열어 박해로 사망된 동수들을 추모



지  
난 11  
월 13  
일, 유  
럽 파룬  
궁학원  
들이 로

마 사하분천광장에서 초불추모회를 열어 중공의 박해로 사망된 동수들을 추모했다.

## 외치니 좋아졌고 좋으니 외쳤다

2008 년 운남촉응시 모건설공지에서 세명의 민공이 시공도중 발판이 붕괴되면서 고공에서 떨어졌고 그중 두명은 당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성씨가 동씨인 민공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여 그에게 왜 전혀 손상입지 않고 무사했는지를 물었다. 물은 결과 그는 법륜공을 수련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비록 그가 수련하지 않아도 그는 법륜공진상을 들었고 몸에는 대법 호신부를 지니고 있었으며 호신부에는 “법륜대법은 좋다! 찌싼런은 좋다!”라는 아홉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대법사부님이 그를 보호해준것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가 떨어져 내려올때 몸 주변에는 하나의 열기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땅에 떨어질때 전혀 감촉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회상했다.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목격한 민공들은 모두 이 아홉글자를 외우기 시작했고 또 일할때마다“법륜대법은 좋다 (헤이영), 찌싼런은 좋다 (헤이영)!”라고 이 아홉글자를 구령을 만들어 외쳤다.

민공들의 구령소리는 당지의 공안국에 알려졌고 경찰들이 대거 공지로 와서 3 일간 뒷조사를 했는데 매 민공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했다. “왜 이렇게 구령을 외치는가?”, 민공들은 너나 할것없이 똑같이 “외치니 좋아졌고 좋으니 외쳤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에는 공안들도 어떻게 처리할지 못하여 돌아가버렸다.

민공들은 외지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평안을 원하지 않겠는가? 중공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백성들이 믿겠는가? 입으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외치지만 뒤에서는 모두 탐오하고 부패하며 법을 지키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그들을 믿겠는가? 민공들의 답변은 더욱 현실적이었는데 “외치니 좋아졌고 좋으니 외쳤다”고 한것은 그들이 모두 그 좋은 맛을 보았고 외치니 좋아졌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친히 체험한 것이였고 가능하게 신체가 더욱 건강해졌을 것이고 또한 모두가 구령을 외칠때 일도 더욱 쉬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들이 이미 실제로 좋은 경험을 했고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는데 계속하여 외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치니 좋아졌고 좋으니 외치는 것이다.” 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생각컨대 외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라도 백성들은 말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중공은 법륜공을 증오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법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글/성우) ◇